

지역 소식통

정읍시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 운영

정읍시는 16일 민물고기 어병 발생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진료 서비스는 내수면 양식 어류 입·출하기를 맞아 내수면 어업 양식장을 운영하는 90여 개 생산 어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어류 이동병원은 전북도 수산 물안전센터와 협업체 관련 공무원과 어류 질병 관리 전문가인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질병 진단과 처방을 하고, 질병 발생 의심 어류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또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법과 어장관리요령, 질병 관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벼 지역 맞춤형  
품종개발 비교전시포 운영

정읍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에 특화된 벼 품종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전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SP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농업인과 RVC,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덕천면, 고부면, 신태인읍에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했다.

시는 이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읍면에 전시포를 조성해 지역별 생육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전시 품종은 지난해 선정된 전주877호, 전주881호, 전주884호 3품종으로, 정읍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 새청무, 안평 3품종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9월에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장평가를 실시해 전시포 상태에서 생육 상태를 비교할 계획이다. 10~11월에는 식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기업유치 ·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력

## 고창군, 삼성전자와 스마트허브단지 조성사업 분양계약 체결 등

고창군은 삼성전자와 분양계약 체결 등을 이뤄낸 뒤로 기업유치·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16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4월 삼성전자와 '스마트허브단지(삼성전자 호남권 물류거점 기점) 조성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20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 내 준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총 3,000억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아울러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관내 기업 및 인력의 우선 활

용·채용도 기대된다.

고창군은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고창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기업애로를 위한 현장방문과 불편사항 해소지원 실적,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과 희망다드림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3000만원 융자지원에 5000만원 융자지원을 추가했다. 상반기 247명 74억2500만원의 융자지원과 2억8700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화에 도움을 줬다.

또한 군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높였다. 연중 10% 할인판매하고 있으며 상반기 321억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외에도 착한기업소 활성화를 위해 업소별 맞춤형 물품지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1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4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은 취업청년에게는 정착수당을, 미취업청년에게는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선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두배적금, 청년월세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15일 오후 고창군 무장면의 한 멜론농장에서 만난 오만종(64)씨가 말했다. 그는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같이 일해보니 부지런한데다 손도 아무지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 긴 장마에 지역농가 눈물 닦아준다

### 고창군 농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 만족도 72%

지난 15일 오후 고창군 무장면의 한 멜론농장에서 만난 오만종(64)씨가 말했다. 그는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같이 일해보니 부지런한데다 손도 아무지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주말부터 또 다시 큰 비가 온다는 소식에 베트남에서 온 드림몽투엔씨는 따가운 멜론 가지 출기 사이를 거침없이 누비며 순치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올해 장마가 속절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아무진 손이 농가들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 7월 중순께 고창에서는 멜론 순치기를 비롯해 노지수박과 고추, 옥수수 수확 등이 이뤄진다.

1500명의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한마음으로 농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고창군 177농가(계절근로자 고

용농가 150곳+일반농가 27곳)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만족도가 72%에 달했다. 매년 일손부족으로 애태웠던 농가들의 인건비 안정화는 물론, 풀밭으로 놀리던 밭에 작물을 심으면서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 안정효과도 확인됐다. 농가의 62%가 남자 인건비로 10~11만원, 72%가 여자 인건비로 9~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고창군 조례에서 권고·제시한 범위내 하한선(남자 11~13만원, 여자 9~11만원)에서 인건비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창군은 농촌인력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3대 사업으로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조제제정·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 설립',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새역사를 써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국회 방문

###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 건의 · 국가 예산 지원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심 군수는 지난달 고창 및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현안업무를 건의한 지 3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정도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심 군수는 이날 국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전복출신 박희승 의원, 이재관 의원,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특히 지역어업인 노을대교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총사



업비 증액 건과 국제 카누 슬러럼 경기장 조성사업, 서해안 구시포 선셋 드라이브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군은 부처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재부와 국회 단계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하여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정착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투명페트병 재활용 실천 무인회수기 3대 시범 운영

정읍시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자원재활용 실천 생활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를 시범 운영한다.

무인회수기는 자판기 형태로 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로봇이다. 이용방법은 휴대전화에 '수퍼빈' 앱을 설치한 후 무인회수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투명페트병을 넣

기만 하면 된다.

페트병을 넣을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야 하고, 유색 페트병이나 음료가 남은 페트병을 넣으면 투입 불가로 인식된다.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앱을 활용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은 의류용 섬유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된다.

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내장산 문화관광 캠프장, 초산동 청소년수련관, 연지동주민센터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이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대 설치해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업무회의

부안군은 최근 2024년 FTA 축산분야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회의는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접수 방법 전달 및 누락되는 피해농가가 없도록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을 전달 하며 진행되었다.

피해보전직불제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

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개나나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